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50호 【루계 제24663호】 주체103(2014)년 9월 7일 (일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청진시에 높이 모시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이 청진시에 높이 모셔졌다.

북방의 철의 도시에 천출위인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의 대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려는 함경북도인민들의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청진시에 높이 모심으로써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태양조선의 력사와 더불어 후손만대에 길이 빛나게 되였다.

청진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식이 6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제막식장은 함북땅을 살기좋은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켜주시려 끊임없는 로고와 헌신의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안고 모여온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 인민군군인들로 차고넘치였다.

제막식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제막식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제막식장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들과 《결사옹위》, 《일심단결》이라는 글발을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량옆에는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으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현영철동지, 김기남동지, 박도춘동지, 곽범기동지, 오수용동지, 로두철동지와 최영건내각부총리, 전승훈 함경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상관 함경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인민군장병들,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공헌한 단위 일군들, 로력혁신자들, 돌격대원들, 도내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제막식에 참가하였다.

청진주재 여러 나라 총령사관성원들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초대되였다.

제막식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을 당과 국가, 군대, 함경북도의 책임일군들이 하였다.

제막포들이 벗겨지자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이 찬연히 빛을 뿌리였다.

하늘땅을 진감하며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수많은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9월의 하늘가를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이어 함경북도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대학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끝없는 경모심을 안고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당의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이 땅우에 김정은시대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식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영광의 이 시각 우리모두는 걸출한 위인들을 수령으로, 령도자로 모신 민족적긍지와 행복을 가슴뜨겁게 절감하며 절세위인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갈 때 우리 나라는 영원한 태양의 나라로 온 세계에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며 우리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총대로 조선혁명을 개척하시고 총대의 위력으로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였으며 새 조국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내이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삼으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김일성동지의 당과 국가,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태양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애국헌신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불패의 일심단결로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 강력한 핵억제력을 갖춘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으며 조국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함경북도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19(1930)년 10월 1일 총검의 숲을 헤치시고 두만강을 건너 온성군 두루봉에 오르시여 국내의 첫 당조직을 결성해주신 뜻깊은 그날로부터 조국해방위업을 이룩하실 때까지 함경북도에 항일대전의 승리를 위한 거룩한 력사의 자욱을 남기시였다.

해방후 함경북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첫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수백개 단위들을 찾으시여 도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에 의하여 도안의 이르는 곳마다에 강철, 전력, 기계, 화학, 경공업기지들이 일떠서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여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정력적인 현지지도로 함북땅에 전변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다.

유서깊은 력사의 땅 회령을 비롯하여 도안의 여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찾으시고 보존관리를 잘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여 함경북도는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북방의 강추위와 삼복의 무더위, 겹쌓인 피로를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이겨내시며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성진제강련합기업소, 무산광산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시여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높이 울리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 나날 성강과 라남의 봉화가 세차게 타올라 주체철의 생산토대가 마련되고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비약과 혁신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으며 도안의 전반적인 경제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함북땅의 이르는 곳마다에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지고 생산활성화의 동음과 인민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고있는 희한한 현실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시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해가려는 함경북도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은 수령영생위업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였다.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돌격대원들과 도안의 인민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백옥같은 충정을 안고 방대한 공사과제를 앞당겨 수행함으로써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모시였다.

청진시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의 빛나는 결실이며 이 땅우에 태양의 력사가 천세만세 흐르게 하려는 함경북도인민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

연설자는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흠모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그는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절세위인들의 태양의 모습을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으로 심장깊이 간직하고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선군조선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순결한 량심과 도덕의리로 충정다해 받들며 천겹만겹의 성새, 방패가 되여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깊이 새기고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남김없이 떨쳐야 할것이다.

당의 의도대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가며 조국땅 북변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초선으로, 강위력한 정치사상적보루로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연설자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제막식은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대한 해설을 듣고 동상들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 선 로 동 당 제 1 비 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김 정 은 각 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수리아아랍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와 그리고 귀국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게 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고있는 친선협조관계를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려는 의지를 확언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

2014년 9월 3일 디마스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 마흐무드 아빠스가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싼 주조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가 리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 있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외교단과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 일본 히로시마슈도대학 명예교수가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외교단 단장인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싼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와 류홍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리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 *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과 히시끼 가즈요시 일본 히로시마슈도대학 명예교수가 6일 꽃바구니들을 보내여왔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항일혁명선렬들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대성산혁명렬사릉에서—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펼쳐진 주체교육의 대화원

남 조 선 각 계 가 격 찬

태양의 따사로운 빛발아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활짝 꽃펴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참모습을 보며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은 숭고한 교육중시사상과 탁월한 령도로 주체교육의 밝은 전망을 펼쳐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다.

언제인가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원은 《이북의 교육은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참된 교육》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일찌기 김일성주석께서 마련해주신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제도하에서 학생들은 앞날의 유능한 인재로 자라났다.

이 우월하고 선진적인 교육시책은 자그마한 흔들림도 없이 시행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탐독했다는 부산의 퇴직교수 장진철은 세상에는 정치지도자들이 많지만 어느 누구도 주석님처럼 인류사에 숙제로 남아있던 교육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준 그런 위인은 없다고 하면서 그분께서 발표하신 교육테제야말로 교육의 사상, 리론, 방법을 집대성한 불멸의 교육총서라고 강조하였다.

인천의 한 지식인은 후대교육을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이북을 전민이 공부하는 배움의 나라, 사회주의교육의 대화원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참으로 주석님은 나라와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행복한 래일을 기약하는 주체교육의 본보기를 마련해주신 민족의 위대한 스승이시라고 칭송하였다.

한 잡지는 《강성대국건설의 지름길》이라는 글에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찌기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비롯하여 교육사업과 관련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할 혁명인재육성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인재육성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북의 교육사업에서는 새로운 비약이 일어났다.

북에서는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에 힘을 집중하였다. 재능의 싹을 귀중히 여기시는 장군님의 세심한 관심속에 북에서는 20대, 30대의 박사대렬이 끊임없이 늘어났다.

인재육성은 콤퓨터과학분야뿐아니라 음악, 미술, 무용,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져 세계무대에서 민족의 존엄과 권위를 높이 떨쳤다.

이북에 이런 교육현실을 펼쳐놓으신 김정일장군님은 참교육의 대화원을 가꾸신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민족교육에 관한 토론회에서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교육의 사명이 사회발전과 민족의 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지덕체겸비의 인재육성에 있음을 명시한 김정일장군님의 명저들은 우리 교육자들의 불후의 지침서이고 민족교육의 라침판이라고 피력하였다.

서강대학교의 한 교원은 교육교양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천하지대본이다, 하기에 북에서는 청소년교육교양사업이 국가적대사로, 전사회적인 과제로 되여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훌륭한 결실을 맺고있다, 그래서 청소년들모두가 지덕체를 겸비한 장래의 믿음직한 예비대로 성장하고있다, 참으로 북의 교육정책은 남녘의 그 어디서나 겨레의 경탄과 절찬을 받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공화국의 현실을 대할 때마다 크나큰 충동에 휩싸이군 한다는 경기도의 한 대학생은 절세의 위인들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활짝 펼쳐진 풍요한 주체교육의 대화원에서 자기들의 희망을 꽃피우고있는 이북의 학생들이 정말 부럽다, 우리도 태양의 품속에 안겨 마음껏 배우고싶다고 진정을 터쳤다.

서울의 지식인 권영철은 공화국의 교육현실을 담은 록화물을 본 소감에 대해 동료들에게 이렇게 터놓았다.

실로 감동없이는 볼수 없는 화폭들이였다.

북의 당과 정부인사들의 축복속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 장면과 청소년학생들의 학생소년궁전에서의 과외학습장면, 묘향산에서의 야영생활장면 등 어느 하나도 놓치기 아쉬운 장면들이였다.

뿐만아니라 북에는 전체 인민이 공부할수 있는 훌륭한 조건이 모두 정연하게 갖추어져있다고 한다.

정녕 이런 훌륭한 교육제도를 마련해주시고 꽃피워주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민족모두가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라야 할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그대로 혁명의 미래를 뜨거운 품에 안아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남녘겨레의 가슴속에 차넘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이 발포된 소식에 접한 남조선 각계층은 놀라움과 부러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처럼 훌륭한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련합뉴스》를 비롯한 언론들도 이 소식을 크게 소개하였다.

남조선의 주요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경대혁명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불을 지펴주시고 평범한 교원가정도 찾으시여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고 하면서 온 나라에 교육중시기풍을 확고히 세우고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을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012년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 2013년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에 참석하시고 올해에는 훌륭히 개건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며 《자애로운 지도자, 친어버이의 모습》을 보여주시였다고 하면서 《김정은제1위원장의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은 선대수령들의 사랑그대로이다.》, 《가는 곳마다에서 김정은제1위원장의 후대사랑이 한껏 부각되고있다.》고 언론들은 찬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성적증에 비낀 위인의 풍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가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정중히 전달되였다는 보도에 접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장을 진감시키던 격정의 환호소리도 다시금 새겨본다.

앞날의 강성조선의 모습은 소년단원들의 성적증에 먼저 그려지게 된다고 하시며 이 나라의 모든 학생소년들에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빛내이기 위해 시간을 아껴 열심히 배워 지식의 탑을 더 높이 쌓아가도록 불타는 열정을 끝없이, 벅차게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축하연설,

절세위인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사회주의조국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는 우리 교육자들에 의해 지덕체를 겸비한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 기둥감으로 자라는 학생소년들의 미더운 모습을 대할수록 잊지 못할 하나의 이야기가 돌이켜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육기관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정책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사회주의교육의 사명과 교육테제의 요구에 맞게 교육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여 청소년학생들을 열렬한 혁명가, 유능한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주체51(1962)년 7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학년말시험을 끝낸 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아직 학생들이 성적증을 받지 못한 사실을 두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제학부 학부장을 만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부장에게 학기말이나 학년말에 학생들을 모여놓고 하는 학습정형총화는 학과성적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시였다.

그이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학부교육행정사업에서 크게 관심을 돌리지 못한 공간이였다.

학부교육행정사업에서 놓치고있는 문제를 바로잡아주시는 그이의 말씀에 자책을 느낀 학부장은 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학과성적을 기본으로 학습정형총화제도를 정규화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날 학부사업에 대한 몇가지 의견을 더 이야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른 학생들의 성적증을 수여할 때 자신의 성적증도 주어야 하겠다고 당부하시였다.

성적증을 요구하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학부장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저으기 놀라며 망설이는 학부장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학부장선생님, 미안해할게 없습니다. 나는 아직 배우는 학생이니 다른 학생들과 같이 성적증을 받아야 합니다. 나라고 례외로 될수 없습니다. 수령님께서도 학년말이 되면 저의 성적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

(성적증을 기다리시다니?!)

한없이 겸허하신 그이의 말씀에 학부장은 다시금 놀랐다.

비상한 탐구력과 정열, 비범한 예지와 해박한 지식으로 모든 학과목에서 특출하시건만 자신도 례외로 될수 없다고 하시며 성적증을 요구하시는 우리 장군님,

성적증에 비낀 절세위인의 풍모,

그이께서 방에서 나가신 후에도 학부장은 오래도록 움직일줄 몰랐다.

본사기자 리금분

혁명렬사 최춘국동지 생일 100돐기념

중 앙 보 고 회 진 행

【평양 9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혁명렬사 최춘국동지 생일 100돐기념 중앙보고회가 6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장정면에는 혁명승리의 표대인 붉은기가 펼쳐져있었으며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모형이 걸려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주체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최태복동지, 최룡해동지, 김평해동지와 김용진, 리무영내각부총리들,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군군인들, 공로자들, 유가족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회는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선렬들이 발휘한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혁명의 붉은기를 억세게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보고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

공화국창건 66돐을 앞둔 지금 천만군민은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우리 조국을 참다운 인민의 나라로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심장깊이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0대의 어리신 나이로부터 80고령에 이르기까지 한평생을 바치시며 우리 조국과 민족, 인류를 위하여 쌓아올리신 업적은 그 어느 위인전의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전무후무한것이다. 그 거대한 업적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람중심의 사상,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현대력사가 새롭게 개척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이 지닌 존엄과 영예, 누리는 참된 삶과 행복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한평생로고의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신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시다.》

인류력사가 시작되여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그 장구한 나날 사회발전의 직접적담당자, 력사의 창조자는 언제나 인민대중이였다. 그러나 노예사회와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와 같은 착취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억압과 멸시의 대상으로 되여왔다.

지난 한세기전까지만 하여도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옳바른 령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던탓으로 사대와 망국을 숙명처럼 감수해야만 하였다. 파란많은 수난의 력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우리 인민의 존엄과 가치를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우신분이 바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빛나게 구현하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였다. 일찌기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것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인민대중을 스승으로 여기고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다.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을 믿지 않고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토록 간직하고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정치신조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나 자주적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되찾고 참다운 삶과 행복을 누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적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혁명은 단 한번의 로선상착오나 실패도 없이 주체혁명의 새 력사를 개척할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세계만방에 빛을 뿌릴수 있게 되였다.

오늘 이 땅우에 일떠선 불패의 사회주의강국과 승승장구하는 주체혁명위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이라는 대지우에 씨앗을 뿌리고 한평생 가꾸어 마련하신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는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심장깊이 새기고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수령님의 한평생의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존엄이 있고 긍지와 영예가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을 자주정신이 강한 혁명적인민으로 키우신 절세의 위인이시다.

사상은 사람의 활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사상에 의하여 규정된다.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은 바로 인민대중을 견결한 자주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세계관이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사상적기치이다. 인류사상사에는 주체사상처럼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상은 없다. 지난날 인민대중이 오랜 세월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지 못한것은 그들이 자기의 자주적인 요구와 힘을 깨닫지 못한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비로소 우리 인민은 사대와 교조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투철한 신념과 의지, 강한 자주정신을 가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복구건설, 두단계의 사회혁명과 장기간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창조해온 나날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뚫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가 있을수 없다는것을 더욱 심장깊이 절감하게 한 긍지높은 로정이였다. 주체사상이야말로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을 키우는 생명수이며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의 사상적기초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자기 힘으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혁명적인민으로 더욱 존엄떨치고있다. 우리 인민은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고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고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이 오늘과 같이 력사의 중심에서 시대를 개척해나가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며 강성번영의 찬란한 미래를 펼쳐나가고있는것은 바로 인민의 수령의 철학, 주체사상이 있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을 그 누구보다 자주정신이 강한 사상과 신념의 전위투사들로 키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우시고 우리 인민의 참된 삶과 행복을 활짝 꽃피워주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리며 존엄있게 살려는것은 인민대중의 세기적념원이다. 이것은 오직 인민대중의 리상과 꿈이 현실로 꽃펴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행복의 요람이며 삶의 터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로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누구나 다 사회의 평등한 성원으로서 동등한 정치적권리를 가지고 모든 주권행사와 국가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고있으며 근로자들이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여 나라의 물질적재부를 늘이기 위한 창조적활동을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 실시되는 무상치료, 무료교육의 혜택은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있다. 하기에 세계인민들은 《조선에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독특한 사회주의제도가 펼쳐지게 된것은 인민의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진정한 인민적정치를 펼치신데 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뀌여도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된 높은 긍지를 안고 살며 투쟁해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은 인간의 존엄과 삶을 빛내여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생명과 같이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따뜻이 보살펴주는 당과 수령의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는것을 혁명적의리로 여기고있다. 노래 《이 땅의 주인들은 말하네》에도 있듯이 로동계급이 주인이 된 우리 제도가 제일 좋고 착취없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싶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의 사회주의와 운명도 미래도 같이할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우리의 사회주의가 인민의 생명으로, 생활로 간직되여있기에 주체의 사회주의는 영원히 승승장구할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도 누릴수 없는 수령복, 장군복을 대를 이어 누려가는 존엄높은 인민으로 자랑떨치고있다. 어버이수령님 따라 시작되고 위대한 장군님 따라 백승떨쳐온 우리 혁명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백두산대국의 창창한 미래를 향하여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다.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는 사회주의조국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존엄과 긍지는 비할바없이 높다.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우리 혁명대오의 혼연일체의 위력은 핵무기로도 깨뜨릴수 없는 최강의 무기로 되고있다. 우리 혁명무력은 천만대적도 감히 범접 못하는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우리 조국은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

조선속도창조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강성국가건설의 령마루에로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조국의 기상은 곧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중적영웅주의의 힘있는 분출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슬하에서 혁명하는 법, 투쟁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난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불가능을 모르는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로 세인을 놀래우고있다.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더욱더 확고부동한것으로 되고있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천세만세 길이 전하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김성룡

항일혁명선렬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위한 진군길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중앙보고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온 나라에 혁명전통교양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나가려는 천만군민의 의지가 높이 발양되고있는 벅찬 시기에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했던 혁명렬사 최춘국동지의 생일 100돐을 기념하고있습니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는 준엄한 항일혁명전쟁과 조국해방전쟁의 불비속에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운 최춘국동지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을 돌이켜보며 항일혁명선렬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불타는 결의를 가다듬게 됩니다.

최춘국동지는 혁명의 총대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받들고 주체의 선군혁명사에 불멸의 공적을 남긴 혁명전사였으며 충직한 군사정치일군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최춘국동무는 왕청유격대 초창기부터 혁명에 참가하여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용감하게 잘 싸웠고 해방후에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하였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잘 싸웠다고 그의 공적을 높이 내세워주시였습니다.

최춘국동지의 한생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서 혁명전사의 가장 큰 영예와 값높은 삶을 누려온 빛나는 생애였습니다.

최춘국동지는 주체3(1914)년 9월 6일 함경북도 온성군의 가난한 농민의 가정에서 태여났습니다.

일제와 계급적원쑤들의 모진 착취와 압박에 못이겨 부모들과 함께 이국땅에 건너간 최춘국동지는 어린 나이에 머슴살이를 하면서 망국노의 설음과 고통을 뼈저리게 체험하며 성장하였으며 일제에 대한 끝없는 적개심과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게 되였습니다.

최춘국동지가 주체19(1930)년 9월 두만강연안 북부국경지대를 무장투쟁의 전략적거점으로 꾸릴 구상을 안으시고 온성지구에 진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뵙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게 된것은 그의 생애와 혁명투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인품에 매혹된 최춘국동지는 수령님이시야말로 조국과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실 민족의 태양이시라는것을 심장깊이 새겨안게 되였으며 수령님을 따르는 혁명의 한길에서 영원히 변치 않을 굳은 맹세를 다지였습니다.

주체21(1932)년 봄 반일인민유격대에 입대한 최춘국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각별한 사랑과 믿음속에서 분대장, 중대정치지도원을 거쳐 련대장, 련대정치위원, 독립려단 정치위원의 중책을 지니고 용감하게 투쟁함으로써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해방후에도 최춘국동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새 조국건설로선을 받들고 함경북도 파견원, 보안간부훈련소 분소장의 중책을 지니고 우리 당의 창건과 정규무력건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였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사단장으로서 최고사령관동지의 전략적의도를 관철하는 투쟁에서 무비의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영웅적위훈을 떨치였습니다.

총대를 틀어쥐고 항일대전의 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온 최춘국동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를 쳐부시는 진격의 길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주체39(1950)년 7월 30일 안동해방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최춘국동지의 한생은 비록 짧았으나 당과 수령을 받드는 길에서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용감성, 영웅성과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는 세대가 여러번 바뀌고 혁명이 멀리 전진한 오늘도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되여있습니다.

수령과 그 위업에 대한 최춘국동지의 끝없는 충실성은 혁명의 사령부를 결사옹위하는데서 남김없이 발휘되였습니다.

최춘국동지는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싸울 때나 멀리 떨어져있을 때나 언제나 한몸이 그대로 성벽이 되고 방패가 되여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여온 수령옹위의 빛나는 전형이였습니다.

백두산서북부일대에서 활동할 때 적의 대병력이 사령관동지께서 이끄시는 주력부대에 쏠리자 최춘국동지는 《동무들, 목숨걸고 사령부를 보위합시다. 사령관동지께서 계시는 조선혁명의 사령부는 우리 인민의 심장이며 모든 희망의 등대입니다. 우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에게 있어서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는것보다 더 귀중한 임무는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적들을 유인소멸하기 위한 결사전에로 련대를 이끌었습니다.

최춘국동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결사의 각오로 맹렬한 군사활동을 벌려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김으로써 원쑤들의 악랄한 기도를 여지없이 분쇄하고 사령부의 안전을 견결히 지켜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조직지휘하신 무산지구전투의 승리를 이룩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최춘국동지는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로선, 명령지시를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완강한 실천력으로 무조건 끝까지 관철한 견결한 혁명전사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에 대한 최춘국동지의 자세와 립장은 참으로 투철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의 항일무장투쟁사에 영웅적위훈의 한페지를 아로새긴 소왕청유격구방위전투는 청소한 항일유격대의 명맥을 굳건히 고수하고 유격근거지와 혁명군중을 피로써 지켜내기 위한 간고하고도 치렬한 전투였습니다.

력량상으로나 무장장비에 있어서 대비도 되지 않는 일제의 방대한 정예무력의 침공으로부터 소왕청유격구를 사수하여야 하는 최악의 조건이였지만 최춘국동지는 확고한 신심에 넘쳐 사령관동지께서 밝혀주신 유인매복전과 저격전, 불무지작탄전을 비롯한 령활한 전법으로 놈들에게 심대한 참패를 안기고 붉은기 휘날리는 혁명의 근거지를 철옹성같이 지켜냈습니다.

주체28(1939)년초 적《토벌대》와의 전투에서 다리에 중상을 입었을 때에도 최춘국동지는 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임무를 끝까지 수행할 결사의 각오를 안고 격전장을 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가우에서 강의한 의지로 부대를 지휘하여 적들을 수세에 몰아넣음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숭고한 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일제의 삼엄한 국경경비진을 돌고 국내에 들어가 온성지구당위원회를 결성할데 대한 임무를 받았을 때에도, 동녕현성전투에서 비발치는 탄우속을 헤치고 반일부대의 사령장을 구출할데 대한 명령을 받았을 때에도 최춘국동지는 언제나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여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였습니다.

꿈결에도 그리던 사령관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북만에서부터 간고한 전투와 행군을 거듭하면서 사선을 헤치고 사령부로 돌아온 최춘국동지가 신들메를 풀 사이도 없이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또다시 남만의 항일련군부대에 파견되여 새 전구에서 용감하게 투쟁한 사실은 그의 높은 혁명성을 말하여주고있습니다.

수령의 명령지시라면 물과 불속이라도 서슴없이 뛰여드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체질화하였기에 최춘국동지는 생의 마지막순간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전투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영웅적투쟁으로 빛내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원쑤들의 불의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남반부의 넓은 지역을 해방하는 남진의 길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작전적구상을 받들고 안동일대의 적을 포위섬멸하기 위한 전투를 지휘하던 최춘국동지는 치명상을 입고 쓰러지게 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이르렀다는것을 직감한 최춘국동지는 군의에게 생명을 5분간 연장해줄것을 간청하고 그 마지막순간에 온몸의 힘을 모아 적들을 철저히 소멸할수 있는 작전안을 참모장에게 알려주고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끝까지 수행해줄것을 절절하게 당부하면서 장렬한 최후를 마치였습니다.

변함없는 신념과 의리, 희생적인 실천투쟁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온 최춘국동지는 이렇게 너무도 일찌기 우리곁을 떠나갔으나 투사가 발휘한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은 오늘도 천만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있습니다.

최춘국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리론, 전략전술로 튼튼히 무장하고 총대로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견결한 혁명전사, 능력있는 군사지휘관이였습니다.

최춘국동지의 생애는 총포탄이 비발치는 전장에서 한생을 보낸 총대전사의 성스러운 투쟁로정으로 빛나고있습니다.

혁명투쟁의 첫 기슭에서부터 무기획득을 위한 전투를 대담하게 벌려 무장대오의 확대강화에 크게 기여한 최춘국동지는 20대전에 벌써 조선인민혁명군의 지휘관으로 성장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령군술을 실천으로 깊이 체득하고 능숙한 전투지휘로 푸르허전투와 정안툰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서 위훈을 떨치였습니다.

주체26(1937)년 9월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교두보의 하나인 휘남현성에 대한 공격작전에서 순식간에 성시를 완전히 장악하고 추격해오는 적들을 격멸소탕할수 있은것은 최춘국동지의 치밀한 전투작전과 능숙한 지휘가 가져온 빛나는 전과였습니다.

군사지휘관으로서의 최춘국동지의 령활무쌍한 지략과 대담한 지휘능력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남김없이 발휘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반공격명령을 받들고 최춘국동지는 언제나 싸움에서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적들을 쥐락펴락하면서 련속적인 타격전을 벌려 불과 한달사이에 원주와 제천, 충주를 련이어 해방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강상류부근에서는 유인전술과 우회전술을 능란하게 배합하여 단번에 적 한개 사단력량을 완전히 포위섬멸하는 혁혁한 전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최춘국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고매한 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뜨거운 혁명적동지애와 실천적모범으로 대원들을 이끌어온 훌륭한 지휘관이였습니다.

최춘국동지는 어려운 때일수록 대원들을 극진히 아끼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적극 보살펴주었으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정치사업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는것을 어길수 없는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동지들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전우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는 최춘국동지였기에 송화강도하전투때에는 《토벌대》가 갑자기 달려들자 적은 인원의 대원들을 데리고 적들을 맞받아나가 유인함으로써 부대의 도하를 희생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해방후 보안간부훈련소 분소장으로 사업할 때에는 부상당한 다리의 아픔을 이겨내며 훈련생들과 같이 산발도 타고 행군도 하면서 그들을 우리 혁명무력의 핵심골간으로 키우는데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치였습니다.

최춘국동지는 대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하여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춤을 추는 련습을 한 정열가였으며 사업에서는 언제나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면서 대원들의 잘못을 제때에 바로잡아준 원칙성이 강한 지휘관이였습니다.

참으로 최춘국동지는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 혁명승리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불굴의 투쟁정신,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높은 자질을 지닌 견실한 일군이였으며 우리모두가 본받아야 할 주체형의 혁명가의 전형입니다.

최춘국동지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숭고한 동지적의리에 의하여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한 총대혁명가의 모습으로 빛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어렵고 중대한 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최춘국동무를 파견하군 하였는데 그는 언제나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하시면서 대성산혁명렬사릉의 반신상위치까지 몸소 정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일찌기 항일전의 나날 총대로 조선혁명을 옹위하는 성새가 되라고 싸창까지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에는 부상당한 그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친히 말까지 보내주시였으며 해방된 조국에서 투사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는 그의 집을 찾으시고 육친의 정을 부어주시였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을 우리 혁명의 원로로, 혁명선배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끝없이 빛내여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최춘국동지의 동상을 그의 고향인 함경북도 온성군에 건립하도록 해주시였으며 그를 원형으로 하는 예술영화를 만들게 하시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투사의 혁명적신념과 투쟁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시였습니다.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의 최고화신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최춘국동지의 생애와 업적은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 수십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되여있으며 앞으로도 선군혁명의 자랑찬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입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백두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한 불굴의 투쟁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려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철석같은 의지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온 나라에 혁명전통교양의 불바람을 일으켜 모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수령결사옹위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며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한몸이 그대로 성벽이 되고 방패가 되여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한 항일혁명선렬들처럼 금수산태양궁전과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사상도 뜻도 운명도 영원히 같이하는 진정한 선군혁명전우, 열혈의 동지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혁명전통교양을 적극 벌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백두의 칼날을 세워주며 백두의 혁명전통이야말로 조선혁명의 영원불멸할 생명선이라는것을 뼈와 살로 깊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함으로써 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그처럼 바라시던 사회주의부귀영화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당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것입니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혁명렬사 최춘국동지의 반신상에 화환 진정

혁명렬사 최춘국동지 생일 100돐에 즈음하여 6일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있는 그의 반신상에 화환이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반신상앞에 놓여있었다.

화환진정에는 최룡해동지, 김평해동지와 김용진, 리철만 내각부총리들, 당, 무력,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군군인들, 유가족들,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최춘국동지의 반신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이어 인민무력부,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부대, 시내 당, 정권기관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화환들의 댕기에는 《혁명렬사 최춘국동지를 추모하여》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최춘국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도착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비행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고 쓴 구호판이 세워져있었다.

이역의 광풍속에서도 애국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에 헌신해온 총련일군들을 맞이하기 위해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비행장에 나와있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양건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축하단성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절세위인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어머니 조국의 품에 안긴 기쁨과 감격에 겨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였다.

군중들이 꽃다발을 흔들고 《환영!》의 구호를 부르면서 축하단성원들을 동포애의 정으로 열렬히 환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위한 환영연회 진행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위하여 마련하여주신 환영연회가 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연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과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재일동포들이 초대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양건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양형섭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마음을 담아 축하단을 위하여 환영연회를 마련해주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비범한 령도와 숭고한 동포애의 정으로 총련을 만방에 찬연히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운명과 미래를 다 맡기고 대대손손 안겨살 위대한 사랑의 품, 영원한 어머니조국의 품이라고 강조하였다.

총련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은 재일조선인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와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인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반드시 열어제끼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허종만의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절대적으로 받들어 이 세상 끝까지 충정다할 불같은 맹세를 안고 조국을 방문하였다고 말하였다.

축하단의 이번 조국방문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은정그대로 총련을 한식솔로 한품에 안아 각별히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육친적사랑이 안아온 결실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축하단을 조국으로 불러주시고 더없는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안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섰다고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영생을 기원하였으며 선군조선의 존엄과 승리의 상징이시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을 삼가 축원하여,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초급일군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벽동군 남중리당위원회에서는 분조장들을 비롯한 초급일군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언제나 농장원들의 앞장에서 농사일을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해나가도록 분조장들을 비롯한 초급일군들을 잘 이끌어주기 위해 리당과 관리위원회일군들을 분조마다 한명씩 담당시키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분조를 담당한 일군들은 분조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분조장들을 비롯한 초급일군들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며 분조농사에서 걸린 문제들을 그들과 함께 풀어나가고있다.

여기에 고무된 초급일군들은 농장원들을 진심으로 위해주고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면서 농사일을 잘 이끌어나가고있다.

청년분조의 분조장 공금철동무는 분조원들이 늘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면서 분조를 단합된 집단으로 만들어 농사일에서 언제나 앞장서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공금철동무를 비롯한 모범적인 분조장들과 초급일군들의 경험을 널리 소개선전하여 농장의 모든 초급일군들이 농장원들의 앞장에서 농사일을 더욱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고있다.

로농통신원 전준갑

우리 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으로 빛내여갈 드높은 열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를 받아안고

교육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킨 력사적인 대회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에 참가하고

하루빨리 우리 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으로 솟구쳐오르게 하여 부강조국건설에서 비약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우리 당은 주체교육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새 세기 교육혁명의 돌파구를 열고 나라의 교육사업전반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뜻깊은 대회를 소집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우리의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우리 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으로 되게 하는것입니다.》

후대들을 위해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여준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수도의 시민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열렬한 축하를 보내주었다. 참가자들은 대회에 앞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찾아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으며 만경대혁명사적지를 경건한 마음을 안고 돌아보았다.

우리와 만난 원산제1중학교 교장 리춘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에 들어서니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우리 교육일군들이 왔구만라고 하시며 반겨주실것만 같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앞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후대교육사업을 더 잘해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들로 더 억세게 키워가겠다고 심장의 맹세를 다졌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의 심정이 다 어리여있는 뜨거운 이야기였다.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은 그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동상에 꽃다발과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으며 항일혁명투사들,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주체교육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은 참가자들은 대학의 혁명사적관과 전자도서관, 수영관들을 돌아보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후대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신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다시금 폐부로 절감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돌아본 이들의 격정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컸다.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이 궁궐같은 살림집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교육자들모두에게 안겨주신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훌륭하게 일떠선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행복의 웃음꽃을 활짝 피웠다.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를 맞으며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된 전국교육실험기구 및 교편물전시회와 교육지원전시회는 대회참가자들의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로 만든 우수한 실험기구 및 교편물들과 다매체 및 모의실험실습프로그람, 첨단과학교육실험설비 등을 주의깊게 돌아보면서 나날이 발전하는 주체교육의 밝은 미래를 확신성있게 그려보았다.

5일 대회가 시작되였다.

뜻깊은 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를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졌다. 그들은 끝없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위대한 교육대강을 자자구구 심장에 새겨넣었다.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태형철, 평양애육원 원장 최송란, 북창군 백운소학교 교장 문순희, 김책공업종합대학 부총장 정광천, 평양건축종합대학 건축대학 학장 량봉진, 벽성군 영웅벽성고급중학교 교장 허혜정동무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새 세기 교육혁명의 포성을 울려주시고 력사적로작을 발표하시여 주체교육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그이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기어이 충정다해 보답해갈 굳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한가정의 14명모두를 뜻깊은 대회장으로 불러주시고 값높이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정에 높은 교육성과로 보답해나갈 결의를 담은 서흥군 신막고급중학교 교원 조은혜, 산골마을 분교로 교원인 안해와 함께 진출하여 20여년간 묵묵히 후대교육사업에 진심을 바쳐온 무산군 차유고급중학교 대곡분교 교원 리순길동무의 토론은 사람들의 마음을 끝없이 격동시켰다.

대회에서는 교육사업과 당의 교육중시정책관철에서 나타난 일부 결함들과 그 원인에 대하여서도 분석총화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전체 참가자들의 우렁찬 박수속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이번 대회가 참가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가 하는것은 장연군 청계고급중학교 교원 정영선동무가 대회가 끝나자마자 《믿음에 받들려》라는 제목으로 즉흥시를 훌륭히 지어 사람들을 감동시킨 사실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참으로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는 우리의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우리 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력사적리정표를 마련한 뜻깊은 대회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세계를 향하여 비약하는 주체교육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는 확신에 넘쳐 우리는 대회장을 나섰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공로혁

그이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들에서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교육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받아안고 세찬 격정과 흥분으로 밤깊도록 잠못 이루는 대회참가자들의 숙소에서 우리는 각지에서 온 일군들과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나라의 교육사업을 론하는 중대한 대회에 참가하여 느낀 소감에 대하여 알고싶다.

평안남도림업관리국 국장 김영간: 사실 우리는 이때까지 해마다 여러차례 교육기관들의 개건사업에 필요한 물자들과 교구비품들을 해결하여 보내준것을 두고 제딴에는 교육부문을 적극 도와주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모든 일군들이 자신과 발걸음을 같이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던 그 시각 우리가 어떻게 일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가슴치며 생각해보았다.

교육사업을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발걸음에 과연 자신은 얼마나 따라섰던가. 백분의 하나 아니 만분의 하나에도 비기지 못할것이다.

자식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의 미래에 대하여 늘 생각하며 할수 있는것 다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날이때까지 그렇듯 진정한 학부형의 자세로 일해왔는가 하는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사업을 자신들의 두어깨우에 무겁게 걸머진 진정한 주인, 진짜배기학부형의 자세와 립장으로 교육지원사업을 보다 통이 크게 전개해나가겠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지배인 동훈: 우리는 돌아가는 길로 후원단체인 오중흡청진제1사범대학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중등학원의 체육관을 건설하는 사업을 기업소의 선차적인 사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박차를 가하겠다.

기업소의 생산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자력갱생기지들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이 사업들을 원만히 진행해나갈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꾸려나가겠다.

철도성 국장 리호훈: 철도기술인재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따라 철도현대화사업의 성과여부가 결정되며 나아가서는 강성국가건설속도가 좌우된다고 말할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첨단실험실습설비들을 많이 갖추어주어 학생들의 시야를 틔워주고 그들이 세계와 경쟁할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를 척척 내놓을수 있는 인재들로 자라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해나가겠다.

우리는 이 사업을 성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본사기자 한경철

장내를 울린 처녀교원의 진정

이번 대회의 높은 연단에 올라 토론을 진행한 섬마을의 처녀교원 조봄향을 온 나라가 다 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뜻을 활짝 꽃피우려 김형직사범대학 수학학부 수재반을 졸업하고 평양을 멀리 떠나 최전연 섬마을 학교의 교원으로 자원진출한 새 세대 처녀교원의 정신세계를 소중히 여겨 우리 당은 또다시 그를 영광의 절정에 내세워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이제는 귀에 익은 서해의 파도소리가 유정하게만 들려오던 어느날, 학생들을 가르치고있던 조봄향동무는 뜻밖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귀를 의심하였다. 이제야 보답의 첫걸음을 뗀 자기가 전국교육일군대회에 참가하게 되였을뿐아니라 토론까지 하게 되였다는 놀라운 사실은 그의 가슴을 크게 흥분시켰다.

그럴수록 흘러온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머리속에 떠올랐다.

대학졸업을 앞두고 가슴부푸는 래일과 꿈속에서조차 속삭이던 일이며 텔레비죤화면에서 최전연의 섬방어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영상을 우러르고나서 잠 못 들던 일, 섬마을아이들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리라 결심을 하였지만 홀로 계시는 아버지생각에 가슴이 미여져오던 일, 딸의 결심이 확고한것임을 안 아버지가 군관의 딸답게 한생 변함없이 살라고 고무해주던 일들이 마치 어제일처럼 느껴졌다. 계속하여 영광의 나날들이 그의 가슴을 더욱 쩌릿하게 해주었다. 최전연섬마을학교의 교원으로 자원진출할것을 결심한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김정일청년영예상을 수여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내가 과연 참되게 살아왔던가?)

그의 생각은 깊어만 갔다.

섬초소의 군인들과 가족들, 학생들은 평양에서 선생님이 왔다고 기뻐하며 끔찍이도 위해주었다. 평양처녀가 섬생활에 쩨익숙해내겠는가고 속으로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견디여냈다. 원쑤들이 침략전쟁연습에 발광할수록 증오로 마음을 벼리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내 이제 학생들을 수령결사옹위의 투사들로, 최우등생들로 키우리라 마음다지며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고충도 없지 않았다. 륙지와 멀리 떨어진 섬의 지역적특성으로 하여 사물현상에 대한 표상이 적은 학생들을 가르친다는것은 곱절이나 힘들었다. 마음이 지치면 먼길을 못 가듯이 그때마다 그는 자신을 다잡았다.

사색과 정열을 다해 말은 수학과목교수에 다매체편집물들을 받아들이고 실물교육과 직관교육을 결합시키면서 학생들이 사물현상에 대한 표상을 가지고 학과목내용을 원리적으로 인식할수 있게 하니 학생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

화창한 4월에는 평양견학도 마련해주시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도 먼저 불러주시는 뜨거운 사랑의 손길이 미쳐올수록 평양은 멀리 있어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섬마을학생들을 키워간다는 긍지로 가슴은 나날이 부풀어올랐다. …

그날의 추억은 그대로 토론문에 옮겨졌다. 조봄향동무는 금시 쏟아질것만 같은 눈물을 걷잡으며 절절절하게 토론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태양과도 같이, 바다와도 같이 한없이 따사롭고 넓고넓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안겨 우리 교육자들의 삶은 영광으로 가득차있다는 한 처녀교원의 진정이 가슴마다에 세차게 파고들었던것이다.

본사기자 김명훈

인재강국건설의 맨 앞장에 서겠다

대회에 참가한 교육자들의 목소리

원격교육체계를 공고하게

우리의 주체교육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을 접하는 순간 나의 눈앞에는 절세위인들을 뵈옵던 때가 어제런듯 우렷이 떠올랐다.

대학에 새로 건설된 전자도서관을 찾으시여 원격교육의 발전전망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을 그대로 체현하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교육중시사상에 받들려 온 나라에 교육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원격교육도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

저는 원격교육을 책임진 일군의 한사람으로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더 큰 힘을 넣겠다. 학생들이 어디에서 일하든지 정보통신수단들을 리용하여 마음껏 배울수 있으며 또 학습의욕을 더욱 높여줄수 있는 프로그람들을 적극 개발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불길을 더 세차게 일으켜나가는데 이바지하겠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 학장 김일남

교원들의 수준을 부단히 높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을 받아안은 우리 교원재교육부문 일군들의 가슴은 지금 한없이 설레이고있다.

뿌리가 든든해야 충실한 열매가 달리는것처럼 중등일반교육을 강화하여야 유능한 혁명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수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고있다.

우리는 낡고 뒤떨어진 지난날의 사업방법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대담하면서도 새로운 사업기풍과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재교육기간을 철저히 교원들의 자질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되게 하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교원재교육사업의 사명과 목적을 옳바로 정하고 교수방법개선에서 앞장선 교원들을 적극 찾아내여 그들의 교수방법에 대한 보여주기사업들을 널리 조직진행하겠다.

이와 함께 교원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내밀어 새 교수방법탐구도입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겠다.

자강도교수강습소 소장 김흥철

새 교수방법들을 더 많이

대회에 참가하여 우리가 받은 충격은 참으로 컸다.

지난 시기 저를 비롯한 우리 학교의 교직원들은 교육에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쯘하게 갖추어놓은데 대하여 남달리 자부하고있었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받아안은 이 시각 우리의 가슴속에서는 교육사업의 더 높은 봉우리를 향한 실천의 맹세가 끓어번지고있다.

우리는 12년제의무교육과정안을 집행하는 첫 교육자들이다. 이에 맞게 우리는 지난 시기보다 훨씬 폭넓고 깊이있는 새 교재에 완전히 정통하며 보여주기 수업들을 과목별로 적극 조직하여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확립해나가겠다.

지식전수위주교육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다양한 교수방법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교원들의 자질을 더욱 높여나가겠다. 혁명인재육성에서 소학교교육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건설의 맨 앞장에서 달려나가겠다.

신의주시 백사소학교 교장 김명순

분교의 종소리 더 높이 울려가리

대회참가자들속에는 무산군의 자그마한 분교에서 올라온 교육자부부도 있었다. 우리와 만난 무산군 차유고급중학교 대곡분교 교원들인 리순길, 황분희동무들은 두메산골에 첫발을 찍던 20여년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시 대곡분교에는 교원이 부족하여 본교교원들이 두달씩 교대로 학생들의 수업을 보장하고있었다.

어느날 친척으로부터 이곳 분교 학생들은 별로 추억할만 한 담임선생님도 없다는 말을 듣게 된 리순길동무의 마음은 몹시 아팠다.

그는 황분희동무에게 자기의 진심을 터놓았다.

《우리 산골분교로 탄원하기요.》

첫 종소리를 울리며 그들부부는 학생들을 혁명인재로 키워 당앞에 떳떳이 내세우리라 굳게 결의다졌다.

그들은 분교실정에 맞는 수업방법들을 찾기 위해 군안의 여러 분교들을 찾아 토론도 하고 경험도 교환하며 새로운 방법들을 탐구하였다. 이 과정에 그들은 새로운 수업방법의 묘리를 터득하게 되였고 교원의 항시적인 관심속에 학생들이 공부할수 있도록 수업밀도를 최대로 보장하였다.

학생들의 학과실력은 부쩍 높아지게 되였다.

그러던 어느날 리순길동무는 몸이 허약한 몇몇 학생들이 수업에 빠진것을 알게 되였다. 그는 안해와의 토론끝에 염소를 길러 40여명이나 되는 학생들에게 정상적으로 우유를 공급할것을 결심하였다. 어깨우에는 또 한가지 무거운 짐이 실리였지만 그것은 그들의 행복이고 기쁨이였다.

교육자부부의 마음속진정을 헤아려 우리 당은 그들의 삶을 보석처럼 빛내여주었다.

리순길동무는 이렇게 진정을 토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이 두메산골아이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도록 분교의 종소리를 더 높이 울려가겠습니다.》

본사기자 김옥별

가정 가슴속에 간직하고 교육사업을 더 잘해나갈 결의에 넘쳐있는 리대순동무의 뜻깊은 대회장으로 불리준 당의 은정을

본사기자 김철우 찍음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경모의 정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축하단성원들은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였으며 총련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제9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가 진행된다

제9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가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된다.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단체와 국제기구들이 참가하는 전람회에는 최신과학기술도서들과 자료들이 전시된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진행되는 이번 전람회는 나라들사이의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다.

유럽나라들과 몽골을 방문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 출발

도이췰란드, 벨지끄, 스위스, 이딸리아와 몽골을 방문하기 위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강석주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6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리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토마스 쇄퍼 주조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마니바드라힌 간볼드 몽골 특명전권대사, 웬찌슬라브 이와노브 벌가리아공화국 림시대리대사가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39호 주체103(2014)년 9월 1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2중3대혁명붉은기

형제산구역 형산남새전문협동농장 제4작업반
신의주시 석하협동농장 남새작업반
연탄군 신흥농장 제7작업반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 제4작업반
봉화지도국 봉화피복연구보급실

3대혁명붉은기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봉화산려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흙보산알비료공장 비료직장
문덕군 룡림협동농장 제4작업반
구장군 하장협동농장 제2작업반
벽동군 룡평협동농장 제5작업반
창성군 창성각
은률군 금복협동농장 제5작업반
은천군 초교협동농장 제2작업반
송화군 온천협동농장 제6작업반
상원군 중리농장 제1작업반
평산군 와현협동농장 제2작업반
황해북도도서관
강계시 흥주남새전문협동농장 제3작업반
전천군 창덕협동농장 농산 제2작업반
동신군 석포협동농장 제2작업반
문천시 관풍협동농장 농산 제2작업반
회양군 금철협동농장 제1작업반
장진군 신흥협동농장 제4작업반
허천군 상농협동농장 제5작업반
김책시 송암남새전문협동농장 제2작업반
길주군 주남협동농장 청년작업반
회령시 원산농장 제9작업반
온성군 두루봉협동농장 제3작업반
성천역
강선역
안변역
영광철길대 장진철길소대
남양제염소 제8직장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전기직장
대동강골재사업소 운수직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40호 주체103(2014)년 9월 1일

모범적인 학교들에 3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우는데서 모범적인 학교들에 3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3중영예의 붉은기

라선시 라진지구 라진소학교

영예의 붉은기

신의주시 신남고급중학교
룡림군 룡림고급중학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과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에 관한

직맹일군들의 연구토론회 진행

김정일애국주의교양과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에 관한 직맹일군들의 연구토론회가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직맹일군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혀주신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에 관한 사상이 가지는 의의와 정당성, 직맹원들속에서 4대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서술한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시기 당원들과 군인들, 근로자들, 청소년들속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과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현상주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4대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은 현시기 직업동맹사상사업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라는데 대하여 토론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사상에는 직업동맹사상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과업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사상교양사업의 중심과업을 명확히 밝히는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견결한 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4대교양을 직업동맹사상사업의 중심과업으로 제시해주심으로써 직업동맹조직들이 동맹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우리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옳바른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이 사상은 현시기 직업동맹사상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낡은 틀을 결정적으로 극복해나가기 위한 근본방도를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다.

직맹원들의 심리적특성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4대교양사업을 새맛이 나게 공세적으로 진행할 때만이 그들을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열렬한 혁명가로 더 잘 키워낼수 있다.

모든 직맹원들을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참된 애국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은 직업동맹의 기본임무이라고 하면서 평양시직맹위원장 김경수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모든 직맹원들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제일동지, 참된 혁명가로 준비시키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직업동맹사상사업의 총적목표는 모든 직맹원들을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그이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도록 하는것이다.

직맹원들속에 김정일애국주의의 참뜻을 깊이 새겨주어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할 때 그들모두를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에 무한히 충직한 참된 애국자들로 철저히 준비시킬수 있다.

각급 직맹조직들과 일군들은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철저히 실현하며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모든 사업을 장군님식대로 해나가도록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모든 직맹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여야 한다.

내각직맹 위원장 김은철은 동맹원들속에서 신념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전체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여야 한다.

직맹조직들은 모든 동맹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과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선군혁명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나가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투철한 혁명적신념을 지니고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혁명선렬들의 백절불굴의 정신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필승의 신념을 지니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드세게 벌려나가야 한다.

신념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공적으로 벌리며 전세대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보여주는 생동한 사실자료들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사상문화와 이색적인 생활풍조가 직맹원들속에 스며들지 못하게 모기장을 든든히 치며 온갖 비사회주의적인 현상들을 철저히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야 한다.

현시기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미제와 온갖 원쑤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직맹원들을 선군혁명의 전위투사로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라고 하면서 사회과학원직맹 위원장 장금철은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당의 붉은 사상, 철저한 반제반미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는 계급교양사업은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온갖 원쑤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직맹원들이 견결한 조국수호정신을 지니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판가리싸움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모든 직맹원들이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환상은 죽음이며 적들과는 끝까지 싸워 피의 결산을 해야 한다는 투철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옹호고수할수 있다.

동맹원들을 선군혁명의 전위투사로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계급교양에 모를 박고 더욱 박차를 가하는데 있다.

직맹조직들은 동맹원들속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계급교양을 진행하여 그들모두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성직맹 위원장 리승권은 직맹원들속에서 도덕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필수적요구이라는데 대하여 토론하였다.

도덕교양은 직맹원들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인민의 모든 리상과 꿈을 현실로 펼쳐주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로고를 바치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끝없이 충실하는것은 선군시대 로동계급의 응당한 도덕의리이다.

도덕교양을 강화하여야 동지들사이의 참된 단합을 이룩할수 있으며 온 사회가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사회주의문명국을 하루빨리 건설해나갈수 있다.

직맹조직들은 도덕교양을 동맹사상교양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틀어쥐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모든 동맹원들이 사회주의도덕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토론자들은 직맹조직들과 동맹원들속에서 4대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직업동맹이 선군혁명총진군에서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 옹호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9·9절에 진행될 녀자축구결승경기

지난 8월 20일에 서산축구경기장에서는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으며 녀자축구경기가 시작되였다.

이 경기에는 소백수, 리명수, 압록강, 평양, 봉화산 등 10여개의 녀자축구팀들이 참가하였다.

모든 팀들은 먼저 2개 조로 나뉘여 조별련맹전을 진행하고 매 조에서 1, 2위를 차지한 팀들이 준결승, 결승의 방법으로, 나머지팀들은 조별련맹전순위에 따르는 직선경기의 방법으로 최종순위를 결정하게 되여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완강한 투지와 빠른 속도, 높은 기술과 째인 전술로 경기를 진행하면 경기에서 주도권을 쥐고 상대방을 압도할수 있으며 승리할수 있습니다.》

9월 2일까지 진행된 조별련맹전에 참가한 모든 팀들은 첫 경기에서부터 감독들의 지도밑에 다양한 전술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좋은 경기성과를 거두기 위한 치렬한 공방전을 벌리였다.

많은 녀자축구선수들이 맹렬한 훈련을 통하여 튼튼히 다진 육체기술전술적능력을 잘 발휘하면서 훌륭한 득점장면들을 련이어 펼치였다.

특히 한차례의 경기과정에 3개의 득점을 성공시킨 선수가 소백수팀과 압록강팀에서 여러명이 나온것으로 하여 관중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키기도 하였다.

조별련맹전결과 소백수팀과 평양팀이 자기 조에서 각각 첫자리를, 압록강팀과 리명수팀이 각각 두번째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준결승경기에 참가하였다.

9월 6일에 진행된 소백수팀과 리명수팀, 평양팀과 압록강팀사이의 준결승경기에서는 소백수팀과 압록강팀이 각각 상대팀들을 이겨 결승경기에 진출하게 되였다.

이번 경기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축구기술을 하루빨리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려 조국의 영예를 금메달로 떨치는 강자로 튼튼히 준비해갈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는 좋은 계기로 되고있다.

또한 많은 신진선수들에게 가치있는 경기경험을 안겨주고 비약적인 기술발전에 대한 신심을 더해주고있다.

소백수팀과 압록강팀사이의 결승경기는 9월 9일에 진행되게 된다.

과연 어느 팀이 영예의 우승을 쟁취할것인가.

날로 높아가는 축구에 대한 사회적관심과 더불어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더욱 뜻깊게 장식할 녀자축구결승경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는 매우 크다.

본사기자 오철룡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채택모임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에서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에서 올리는 축전을 채택하는 모임이 6일 중국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회장과 재중조선공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 경축연회

총련에서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5일 일본 도꾜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경축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들과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국장들, 간또지방총련본부 위원장들, 중앙단체, 사업체책임일군들, 동포상공인들이 참가하였다.

일본의 각계 인사들과 일본주재 여러 나라 대사들, 국제기구대표들, 특파기자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연회에서는 남승우부의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정력적인 현지지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강성국가건설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으며 인민생활향상에서도 눈부신 성과가 이룩되고있다고 말하였다.

올해 5월 총련 제23차 전체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다음해 5월에는 총련결성 60돐을 맞게 된다고 하면서 총련이 앞으로도 계속 사회주의조국과 더불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며 조일우호친선을 보다 발전시키는데 모든 힘을 다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오늘 조선반도군사적긴장의 원인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군사적압력과 도발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괴뢰패당이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정책을 버리고 북남관계개선에 진지하게 나설것을 요구하는 공화국의 제안들에 호응하기는커녕 북에 대한 비방중상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였다고 규탄하였다.

특히 공화국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응원단을 파견하려고 하였지만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처사때문에 성사되지 못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지난 5월 조일정부간담에서 이룩된 조일평양선언의 리행과 관계개선을 위한 합의들이 성실히 리행되기를 기대한다고 그는 밝혔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청송조선옷점에서 — 지혜를 합쳐간다·—신의주시편의봉사관리소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호평을 받는 조선치마저고리들을 만들기 위해

위대한 시대와 더불어 더욱 빛을 뿌리는 조선민요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교원, 연구사들과 나눈 이야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요는 매개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정서와 생활감정에 맞는 참다운 인민의 노래이다.》

예로부터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오랜 세월 살아온 우리 인민은 조선민족고유의 정서와 색채가 흘러넘치는 많은 민요유산들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산천도 민요도 날을 따라 더욱 아름다와진 우리 조국이 오늘은 또 한분의 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가는 곳마다 사회주의선경들로 눈부시게 변모되고 그 선경들은 로동당시대의 새 명곡들을 끝없이 낳고있다.

사회주의바다향기 넘쳐나는 노래 《바다 만풍가》에 이어 또다시 선군시대의 청춘과원을 구가하는 《철령아래 사과바다》와 같은 명작이 태여났다.

얼마전 우리는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주체음악연구소 실장 최기정, 연구사 한휘국, 작곡학부 강좌장 윤희광동무들을 만나 선군시대가 낳은 민족적향취가 짙은 명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이번에 시대의 명작으로 태여난 노래 《철령아래 사과바다》를 들으며 누구나 우리 민요가 제일이고 우리 장단이 제일이라는것을 깊이 절감하고있다. 특히 우리 새 세대들은 민족의 귀중한 재부인 민요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싶어하고있다.

한휘국: 지난날에는 작가, 작곡가가 따로 없이 오랜 력사적시기를 거쳐 인민대중속에서 널리 불리워오면서 다듬어진 노래만을 민요라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민요를 그렇게만 볼수 없다.

음악전문가들에 의하여 창작된 노래도 민족적선률의 특성이 뚜렷하고 민족적정서가 안겨오게 잘 지어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우게 되면 민요화되였다는 의미에서 민요라고 할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옛날에 인민창작으로 창조된 구전민요들과 함께 해방전에 창작가들이 창작한 신민요들, 해방후에 창작한 민요풍의 노래들을 다같이 민요로 취급하고있다.

우리 민요는 인민들의 로동과 생활과정에 발생하였고 그들속에서 불리워지며 대대로 전파되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와 더불어 발생발전하여온 우리 민요는 로동당시대에 이르러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보살피심속에 우리 나라에서는 민요가 시대의 요구와 사명에 맞는 인민의 참다운 예술로 활짝 꽃펴나게 되였으며 우리의 민족음악은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다.

기자: 인민들의 로동과 생활과정에 창조되고 그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면서 전해온것으로 하여 우리 민요는 그 종류와 형식도 매우 다양하다고 본다.

최기정: 그렇다. 매개 나라 민요의 종류와 형식은 서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로동민요, 서정민요, 풍자민요, 세태민요, 풍속민요, 륜무민요(륜무가) 등이 중심을 이룬다.

우리 나라 민요종류에서 기본적이며 압도적인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근로인민들의 로동과정과 련결된 로동민요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체험과정에 형성된 내면세계를 표현한 서정민요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조선민요의 형식구조는 대부분이 절가형태로 되여있고 흔히 전렴과 후렴, 먹이는 소리와 받는 소리로 구성되여있다.

노래마다 선률음조가 독특하고 특색이 있으며 음률이 잘 째여있다.

민요선률의 고유한 특성의 하나로 되고있는 굴림도 다양한 가창기교로 민족적인 멋을 더욱 돋구어주며 조식도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선률의 민족적색채를 풍부하게 살리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조선민요는 지역에 따라서도 구분하는데 크게는 서도민요, 중부지방민요 등으로 분류한다. 서도민요는 평안도, 황해도지방의 민요로서 우리 민요에서 주되는 자리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선률이 맑고 우아하며 유순하고 류창하면서도 명랑하고 약동적이다.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는 《양산도》, 《도라지타령》, 《롱강기나리》 등이 대표적인 서도민요들이다.

기자: 조선민요의 우수성은 그의 고유한 장단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본다.

한휘국: 조선민요는 고유한 민족장단에 리듬적기초를 두고있다.

조선장단은 그 종류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할뿐아니라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조선장단은 매개 종류와 형태에 따라 일정한 박자와 속도, 리듬형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으로 자체의 고유한 정서적성격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같은 노래라도 서로 다른 장단을 적용하면 그의 정서적성격이 달라지게 된다.

조선장단에는 속도적개념으로 불리우는 중모리장단, 잦은모리장단과 정서적개념으로 불리우는 진양조장단, 장단의 구성형태에 따라 이름지은 도도리장단, 노래제목을 본따서 부르는 타령장단, 양산도장단, 이밖에 굿거리장단, 살풀이장단 등 여러가지 기본장단들이 있다. 그리고 부분적변화에 따라 구분되는 보조장단, 섞음장단, 변장단 등이 있다.

기자: 참으로 종류와 형식에 있어서, 그것이 가지고있는 고유한 특성에 있어서 조선민요는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북돋아주고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깊이 심어주는 귀중한 재보이다.

우리 민요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고 생각한다.

윤희광: 위대한 시대는 위대한 명곡을 낳는다. 날을 따라 늘어나는 사회주의선경들과 더불어 또 하나의 시대의 명작으로 태여난 가요 《철령아래 사과바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천재적인 음악세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이 노래를 듣느라면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진 사과바다속에서 기쁨에 넘쳐있는 우리 인민의 모습이 금시라도 보이는것만 같다. 그런가하면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심혈과 로고속에 이런 꿈같은 현실이 펼쳐졌음을 모두의 가슴에 뜨겁게 새겨주고있다.

이렇듯 노래는 밝은 양상속에 깊은 철학적의미를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틀어잡고있다.

노래는 민요의 고유한 본색과 선률의 민족적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정서를 구현하여 형상을 새롭게 창조하였다.

매 구절마다 민족적정서가 짙은 선률형식을 취하고있는것이 매우 특색있다.

또 동일한 리듬들이 균형적으로 반복되여있고 누구나 부르기 쉽게 되여있어 사람들이 좋아하고있다.

진정 노래 《철령아래 사과바다》는 당정책을 결사옹위하고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소리높이 구가하는 주체음악의 빛나는 열매이며 우수한 조선민요의 화원에 시대의 숨결이 더욱 세차게 맥박치게 하는 귀중한 재보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살며 투쟁하는 창작가, 예술인들이라면 모두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음악창작에 자신들의 창조적열정을 다 바쳐나감으로써 당을 노래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진군의 나팔소리를 힘차게 울려나가야 할것이다.

조향미

주목을 끄는 에이코사펜타엔산과 린지질

현재 세계적으로 사람의 로화의 근원으로 되고있는 뇌출혈, 뇌혈전, 뇌경색, 심근경색, 심장발작, 협심증, 비만증, 당뇨병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병들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이 심화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에이코사펜타엔산〉이라는 불포화지방산은 특히 혈전증,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데 좋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평균수명이 매우 길고 고혈압, 동맥경화증과 같은 질병이 거의 없으며 관상동맥성심장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현저히 낮은 에스키모인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과정에 그 원인이 이들의 기본주식인 물고기들에 함유되여있는 불포화지방산의 작용과 관련된다는것을 해명하였다. 고등어, 청어, 정어리를 비롯한 등이 푸른 물고기의 기름에 불포화지방산인 에이코사펜타엔산이 들어있다.

에이코사펜타엔산은 인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다.

에이코사펜타엔산이 항염증작용, 면역증강작용 등을 한다는것이 밝혀진 이후 세계적으로 이 물질과 관련한 생물학, 약리학, 제약 및 림상응용분야에서 많은 과학연구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에이코사펜타엔산은 신경쇠약과 로화방지, 피로회복 등에서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는 한편 피부를 보다 부드럽고 깨끗하게 해주는것으로 하여 천연미안제로 그 수요는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린지질은 인체의 정상적인 물질대사와 건강유지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기초영양물질이다.

린지질은 모든 세포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세포막의 구성성분으로 되며 뇌, 심장, 피줄, 간장, 콩팥, 폐, 취장 등 신경계통과 소화기계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통의 생리기능을 조절함으로써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는데서 반드시 있어야 할 영양물질로 된다.

린지질은 간의 지방화를 막고 간세포재생을 촉진시킨다.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끄는 뇌수의 기능을 유지하고 빠르게 하는 좋은 물질이 몇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린지질이다. 많은 나라들에서 이러한 에이코사펜타엔산과 린지질을 가지고 만든 약품을 건강장수약품으로 인정하고 사람들의 병치료와 예방에 적극 리용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과학자들이 이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에이코사펜타엔산과 린지질을 결합하여 효능이 높으면서도 안정한 첨단수준의 에이코사펜타엔산린지질주사약을 개발하는 등 좋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본사기자 김경철

에볼라병과 그 예방대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생방역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전염병을 미리막는것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에이즈와 싸스, 조류독감과 같이 동물에게서 류행되던 악성전염병들이 사람들사이에 옮겨져 인류의 생존에 커다란 위협을 주고있다.

에볼라병도 그와 같은 류형의 전염병이다.

에볼라병은 사람들의 몸에서 고열과 출혈을 일으키는 급성전염병이다.

1976년에 수단의 서북지역과 민주꽁고의 에볼라강류역에서 사는 주민들속에서는 고열과 출혈로 인해 300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현상이 나타났다.

학자들은 그후 이 병을 에볼라강류역에서 발생한 전염병이라고 하여 에볼라병이라고 하였다.

그로부터 몇해후인 1979년에 수단에서 에볼라병이 또다시 발생하여 400명이 죽었으며 민주꽁고에서는 주사기를 잘 소독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리용한 결과 300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고 그중 90%가 목숨을 잃었다.

오랜 연구끝에 학자들은 에볼라병의 병원체가 실모양으로 생긴 휠로비루스(에볼라비루스)라는것을 확증하였다.

에볼라병이 발생하던 초기에만 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휠로비루스에 의해 감염된 원숭이의 날고기를 먹고난 후 아픔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에볼라병에 걸린 사람들의 혈액이나 체액, 장기조직을 통해 쉽게 감염되고있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불안을 극도로 조성하고있다.

현재 이 병은 기네와 리베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는 물론 유럽에까지 전파되였다.

에볼라병의 잠복기는 2~21일이다.

휠로비루스가 몸안에 침입하면 3일정도 고열이 나면서 온몸이 쑤시는 등 감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다가 물집이 형성되면서 피부가 떨어져나가게 된다.

병이 생겨 6일만에는 간과 콩팥장애와 함께 눈과 귀, 코 등으로 피가 나오면서 허탈에 빠지게 되며 9일만에는 사망하게 된다.

에볼라병의 초기발생때에는 사망률이 30%정도였는데 사람들사이에 전염이 이루어지면서부터는 50% 또는 그이상에 이르렀다.

에볼라병의 진단은 피부변화와 출혈 등 이 병의 특징적인 증상과 휠로비루스분리 및 동정, RT-PCR검사로 할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특이적인 치료약과 예방약이 개발되지 못한 조건에서 많은 나라들에서는 에볼라병환자와 접촉자들을 격리시키고 다량의 점적과 지혈제, 항비루스제들을 적극적으로 쓰고있다.

그리고 보건일군들은 잘 소독된 위생복과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환자치료에 림하고있으며 주사기를 비롯한 의료기구들을 철저히 개별화하여 쓰고있다.

우리는 에볼라병에 대해 잘 알고 국경검역사업을 강화하여 이 병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현대적인 검역설비들을 갖추어놓고 다른 나라에 갔다오는 사람들과 우리 나라에 오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검역을 엄격히 해야 한다.

또한 위생방역사업과 에볼라병의 예방약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어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보건성 보건경영학연구소 소장 교수 박사 최창식

다음주에 진행될 청년선수권대회 경기들

청년선수권대회 종목별경기들이 다음주에도 계속 진행되게 된다. 9일부터 고원군에서 롱구경기가 시작되며 10일에는 평양에서 자전거, 수영경기가 벌어지게 된다.

바드민톤, 송구경기들이 11일과 12일부터 평양에서, 지상호케이경기가 13일부터 남포에서 각각 있게 된다.

스웨리예왕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임명

스웨리예왕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스웨리예왕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로 강용덕동지가 임명되였다.

일조우호 야마나시현대표단 도착

가네마루 야스노부 야마나시 TV주식회사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조우호 야마나시현대표단이 6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날 조선대외문화련락협회에서는 일조우호 야마나시현대표단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

유럽동맹-아시아쎈터대표단 도착

프레이저 캐머론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럽동맹-아시아쎈터대표단이 6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총련일군대표단이 떠나갔다

허명도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일군대표단이 6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북남관계파국의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최근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강행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의 후과가 참으로 막심하다. 가뜩이나 파국에 처하였던 북남관계는 더욱 험악한 상태에 처하였다. 그 책임은 두말할것없이 미제의 북침전쟁도발소동에 적극 편승해나선 괴뢰패당에게 있다.

우리 공화국은 여러차례에 걸쳐 북남관계의 첨예하고 복잡하며 긴장한 현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였다.

이번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과 관련하여서도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을 중지할 용단을 내릴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날로 커가는 새 전쟁발발의 위험을 가시고 북남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려는 의지의 발현이였다. 온 겨레와 국제사회는 이에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였다.

그런데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은 《년례적인 방어훈련》이라는 간판밑에 그 위험천만한 불장난소동을 끝끝내 벌려놓았다. 이것은 그들이 오직 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유사시 조선전선에 투입할 미제침략군부대들과 괴뢰륙해공군의 대병력 및 최신전쟁장비들 그리고 괴뢰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군수, 민간업체 등 수십만명이 동원된 이번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연습이였다. 이번 연습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맞춤형억제전략》을 처음으로 공식적용한 사실을 놓고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남조선의 광범한 여론과 각계 단체들은 이번 연습이 《평양점령》과 핵선제타격을 노린것이라고 폭로하였다.

누구에게나 명백한바와 같이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뻔질나게 감행하고있는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은 군사적도발과 위협의 전형이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지난 60여년간 남조선에서는 어느 하루도 북침전쟁연습이 그친 날이 없었다. 남조선괴뢰들은 침략적인 외세와 결탁하여 군사적적대행위에 미쳐날뜀으로써 북남관계개선은 고사하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기를 극도로 고조시키였다.

최근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의 화살을 조선반도에 집중하고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있다. 그 누구의 《핵위협》과 《미싸일도발》을 여론화하면서 반공화국제재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는 한편 숱한 핵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들이밀어 일촉즉발의 정세를 몰아오며 북남사이에 쐐기를 더욱 깊숙이 박으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그런데 괴뢰들은 우리 민족을 희생시켜 대아시아지배전략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침략정책에 적극 동조하여 호전적광기를 부림으로써 북남관계를 더욱 수습할수 없는 파국에로 몰아가고있다.

올해에만도 괴뢰호전광들은 벽두부터 그 무슨 《격멸》과 《응징》을 부르짖으며 포사격훈련을 미친듯이 감행하였고 방대한 미국의 핵전쟁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여 대규모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뒤이어 대규모의 련합상륙훈련과 공화국의 전지역에 대한 공중타격을 노린 련합공중전투훈련인 《맥스 썬더》연습에 광분하였다. 이번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까지 놓고보면 괴뢰들은 사실상 북침전쟁연습으로 날과 달을 이어왔다. 그것들은 어느것이나 다 규모와 내용, 강도에 있어서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불장난이였다.

제 나라, 제 민족도 모르고 겨레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미국상전과 결탁하여 화약을 안고 불속에 뛰여드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망동도 서슴지 않는 괴뢰패당이야말로 미국의 특등전쟁하수인, 핵전쟁공범자이다.

분노를 금할수 없는것은 괴뢰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려고 발광하면서도 그 무슨 《대화》를 운운하며 군사연습이 끝나면 그것이 이루어질수 있는것처럼 여론을 내돌린것이다. 이야말로 철면피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군사연습강행으로 북남관계를 파국의 극단에 몰아넣은자들이 저들의 범죄적책임을 모면해보려고 《대화》타령을 늘어놓은것이지만 그따위 서푼짜리 잔꾀는 어디에도 통할수 없다. 미제와 야합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광란적인 전쟁연습을 벌리면서 대화를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상대방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내외여론에 대한 용납 못할 기만이다. 북침전쟁연습이 중지되지 않는 한 북남사이의 그 어떤 대화나 관계개선노력도 무의미하며 실현불가능하다는것은 력사의 교훈이다.

민족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나가려는 동족의 진심어린 제안은 뿌리치고 외세의 옷자락에 매달려 반공화국공조와 북침전쟁도발소동에 피눈이 된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북남관계를 해치려는 고의적인 책동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민족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눈앞의 집권위기수습에만 치중하면서 북남관계를 외세의 침략전략실현의 롱락물로 내맡기려 하는것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괴뢰패당은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가로막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의 위험을 극도로 고조시킨 범죄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이 극심한 속에서도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의지로부터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 기울여왔다. 하지만 괴뢰패당은 우리의 선의에 극도의 악의로 대답해나섰다.

자나깨나 우리 공화국을 어째보려고 기를 쓰고 날뛰는 이런자들에게서 그 무엇을 바란다는것은 병풍에 그린 닭이 홰를 치기를 바라는것만치나 어리석은 짓이다. 속에 칼을 품고 덤벼드는자들을 과연 어떻게 신뢰하며 그들의 《대화》타령을 어떻게 믿을수 있겠는가.

북남관계는 결코 남조선통치배들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의 롱락물이 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대화냐 대결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립장을 똑바로 밝혀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과 대화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미국을 끌어들여 벌리는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완전히, 영원히 걷어치우는 결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립장과 자세에 달려있다.

허 영 민

북남대결을 격화시키는 정치적도발

북남관계가 극도로 첨예한 지금 괴뢰들이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더욱 광기를 부리고있다. 최근 괴뢰들이 그 무슨 《북인권기록전시관》이라는것을 설립하겠다고 날치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북인권기록전시관》이라는것이 거짓과 무근거한 날조자료들로 반공화국《인권》소동을 지속적으로 여론화하기 위한 모략의 본거지로 될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인권》모략소동이 끈질기게 감행되여왔지만 《전시관》이라는것까지 만들어내는것은 북남관계사상 류례없는 일이다. 이것은 동족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괴뢰패당의 무조건적인 거부감과 극도에 달한 체제대결광증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북인권기록전시관》설치놀음은 북남관계를 더더욱 수습할수 없는 파국에로 몰아가는 악랄한 정치적도발이다.

그 무슨 《북인권》이니 뭐니 하는것은 터무니없는 날조이고 비렬한 중상모독이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온갖 권리를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해주는 인권의 본보기이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꿈과 리상이 빛나는 현실로 활짝 꽃펴나고있으며 누구나 존엄높은 삶을 누리고있다. 주체사상이 구현되고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지난 시기에는 물론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 어떤 《인권》문제라는것이 제기조차 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에 대해서는 모르쇠를 하면서 한사코 《북인권기록전시관》이라는것을 설치하려는데는 불순한 기도가 깔려있다. 《인권》모략소동으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에 먹칠을 하고 남조선사회에 동족에 대한 거부감과 적대의식을 고취하여 반공화국대결정책과 체제통일망동을 정당화하려는것이 괴뢰들의 계책이다. 현 괴뢰집권세력이 제 집안에서는 《북인권법》이라는것을 한사코 제정하겠다고 날치면서 국제무대에서는 우리를 모해하는 《인권결의안》을 공동제안하고 유엔《북인권사무소》를 남조선에 끌어들이겠다고 공언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괴뢰패당의 《북인권기록전시관》설치놀음은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의 절정으로서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지금 북남관계는 칼끝처럼 첨예하다. 얼마전 괴뢰호전광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벌려놓은 대규모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북남사이의 불신과 군사적대결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조선반도정세는 전쟁전야의 엄중한 상태에 이르렀다.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처사로 하여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응원단이 참가할수 없게 됨으로써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기회가 또다시 망쳐지는 불미스러운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런 정세하에서 남조선당국자들이 민족의 운명과 북남관계문제에 티끌만 한 관심이라도 있다면 터무니없는 모략행위로 동족을 모함하고 자극하는 도발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괴뢰들이 《북인권기록전시관》이라는것을 설치하겠다고 팔걷고 나서는것은 그들이 북남관계의 개선을 조금도 바라지 않으며 추구하는것은 오로지 동족사이의 대결과 반민족적인 체제통일이라는것을 명백히 립증해주고있다.

현정세하에서 극단적인 반공화국《인권》모략으로 우리에게 도발을 거는것은 그야말로 북남관계를 더는 헤여날수 없는 파국의 낭떠러지로 차던지는 무분별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최근 북남사이의 그 무슨 《대화》를 운운하며 너스레를 피우고있다. 하지만 남조선에서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인권》모략광풍이 스산하게 불어치고있는데 과연 대화에 대해 생각할수 있는가. 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유치한 말장난에 침을 뱉을것이다. 도발적인 《북인권기록전시관》설치놀음으로 괴뢰들은 저들의 《대화》광고가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한갖 거짓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우리는 이미 체제대결의 종착점은 괴뢰들의 종국적파멸이라는데 대해 알아들으리만큼 충고도 주고 경고도 하였다.

우리의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시간이 증명해줄것이다.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에 광분하면서 민족앞에 죄악을 덧쌓는 괴뢰반역패당은 반드시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야말것이다.

은 정 철

미래가 없는 남조선

심각한 교육실태

오늘 남조선의 교육실태는 심각한 지경에 놓여있다.

교정에서 폭력행위와 무질서가 범람하고있다.

남조선 《련합뉴스》는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불과 11일동안에 학교에 입학한지 두달도 안되는 2명의 학생이 폭력행위로 교내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4월 22일 광주시 남구의 한 중학교학생은 학교에서의 폭력행위에 견딜수 없어 아빠트에서 몸을 던져 자살하였다.

한 관계기관이 남조선 전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학생 5 53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3%가 학교내에서 폭력행위로 심한 고통을 느꼈고 44.7%가 자살시도를 한적이 있다고 밝혔다.

괴뢰교육부는 학교폭력건수가 신고된것만도 2012년 8만127건에서 2013년 10만1 524건으로 증가하였다고 아우성쳤다.

교육현장이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공간으로 전락된것은 더이상 간과할수 없는 일이다.

괴뢰교육당국은 남조선 전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들에 북남대결을 고취하는 교육의 확대를 위한 《학생안보교육계획》수립을 강요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너절한 인간쓰레기들까지 내몰아 반공화국대결교육에 광분하고있다.

보수단체들은 《북핵시험 바로알기》와 같은 특별수업놀음을 벌려놓고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모해, 중상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이 과거 독재《정권》시기 대결의식을 주입하던 교육이 재현되는듯 한 분위기라고 우려를 표시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교육이 돈벌이수단으로 되여 학생들의 배움의 열망을 깡그리 짓밟고있다.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등록금은 대학생들을 불행과 고통속에 몰아넣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높은 비률의 리자로 돈을 꾸었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대상들이 늘어나 현재 대학생 5명중 1명이 막대한 빚을 지고있다.

학부형들의 허리가 굽는다고 하여 《인골탑》이라고 불리우는 등록금을 위해 부모들은 집과 가산까지 팔며 고통을 감수하고있다.

대학생의 80%이상이 학비를 벌기 위해 식당이나 공사판, 유흥업소에서 과외로동을 하고있으며 의학생체실험대상으로 제 몸을 바치다 못해 사회를 저주하며 목숨을 끊는 대학생들도 부지기수이다.

남조선의 심각한 교육실태는 현 괴뢰정권의 반인민적인 교육정책이 빚어낸 필연적인 산물이다.

현 집권자는 《대통령》선거당시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며 공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느니,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대학생반값등록금을 실현할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귀맛좋은 공약들로 민심을 기만하였다.

남조선 각계에서 현 《정부》의 반인민적인 교육정책에 대해 《학생과 학부형의 삶을 송두리채 갉아먹고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정책》, 《교육현장을 리념갈등과 혼란의 란무장으로 만든 정책》, 《죽음을 부르는 미친 교육》이라는 규탄의 함성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미래를 짓밟는 사회, 썩고병든 남조선의 심각한 교육문제는 현 집권세력을 권력의 자리에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가도 해결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교원의 량심이 처벌받을 대상인가》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괴뢰패당의 전교조탄압책동을 규탄하여 2일 《교원의 량심이 처벌받을 대상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정부》의 반민중적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학교들에서의 교육실태는 심각할 정도라고 지적하였다. 더우기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교원들은 《세월》호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현 《정권》과 《새누리당》의 책임회피를 보고만 있을수 없어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여야 하는가고 비난하였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교원들의 의사표현은 아이들에게 이토록 불안한 사회를 물려줄수 없다는 자책과 교육자로서의 량심에서 우러나온 책임있는 행동이였다고 주장하였다. 교원의 량심을 범죄행위로 기소하고 구속령장을 신청하는 이 사회는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가고 개탄하였다.

지금 민심은 암담한 교육현실을 개선하고 아이들에게 옳바른 교육을 실시할것을 바라며 전교조를 지지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전교조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을 멈추지 않고있다고 사설은 단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감출수 없는 선거개입사건의 진상

얼마전 괴뢰국방부가 불법적인 《대통령》선거개입사건과 관련하여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국방부직속 싸이버사령부의 이전 사령관들을 포함한 21명을 립건하였다. 이에 대해 괴뢰국방부 조사본부는 싸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했고 전직사령관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부 소수인원들이 개인의 견해에 따라 선거개입관련글을 게시했으므로 《조직적선거개입은 없었다.》는 종전의 립장을 되풀이했다. 괴뢰군부의 이런 엉터리조사결과발표는 남조선 각계의 커다란 항의규탄을 자아내고있다.

폭로된데 의하면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괴뢰군싸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라는자는 부하들에게 《북의 주장이나 의견에 동조하는 개인과 단체는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부 정치인들의 이름까지 찍어가며 그들을 비난하는 글들을 인터네트에 올리라는 지령을 하달하였다고 한다. 지어 자기가 직접 쓴 글들을 넘겨주면서 《정치적표현도 주저하지 말라.》고 내려먹였다. 그후 이자는 《대통령》선거개입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자 급해맞은 나머지 증거자료들을 모두 삭제 또는 변경하도록 하였다. 물론 이자는 송사리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들은 괴뢰군싸이버사령부의 《대통령》선거개입사건이 괴뢰군부와 정보원, 보수집권세력이 치밀하게 작전하고 계획한데 따라 추진된 조직적인 선거부정범죄행위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원래 괴뢰국방부는 지난해 12월사건에 대한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여 선거개입사건의 모든 책임을 심리전단장에게 들씌우면서 전직, 현직사령관은 그런 지시를 한적이 없었다고 우기였다. 그리고 심리전단의 몇몇 인물들을 처벌하는것으로 사건을 어물쩍하여 덮어버리려 하였다. 하지만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는 법이다.

그후 괴뢰군싸이버사령부가 정보원으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100여명에 달하는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의 정보활동비를 지불하면서 조직적으로 인터네트에 당시 《새누리당》의 《대통령》후보를 지지하고 야당후보들을 헐뜯는 글들을 류포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선거직전 괴뢰군싸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 요원수가 두배이상으로 증가되고 매 성원들에게 《작전용》명목으로 인터네트에 접속할수 있는 손전화기가 공급된것도 모두 정보원의 예산지원결과였다는것이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싸이버사령부 우두머리들이 모르고있었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추가조사결과 일부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되는 바람에 하는수 없이 괴뢰군부는 불법적인 《대통령》선거개입사건과 관련하여 싸이버사령부의 이전 사령관들을 포함한 21명을 립건한다는 내용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조직적선거개입은 없었다.》고 강짜를 부리고있는것이다.

괴뢰군부의 이런 최종수사결과발표놀음은 즉시 각계로부터 《부실수사》, 《축소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남조선언론들은 군부가 선거개입사건의 정치적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에서 속도조절을 하였다고 평하였다. 더우기 남조선 각계는 괴뢰군부가 사건당시 국방부 장관이였던 김관진이 싸이버사령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힌데 대해 《면죄부수사》, 《꼬리자르기수사》라고 한목소리로 규탄하고있다.

얼마전 새정치민주련합은 괴뢰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과발표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특검을 도입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 당 수석대변인은 수사결과의 요점은 결국 정치개입은 했으나 《대통령》선거개입은 하지 않았고 개인소행은 있었지만 조직적개입은 없었다는것인데 이야말로 민중을 우롱하는것이라고 성토하였다. 이어 그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였던 현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번 수사의 목적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진상은폐와 김관진구하기였다고 격분을 표시하였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괴뢰군싸이버사령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김관진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괴뢰보수패당이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저들이 저지른 사상 류례없는 특대형선거부정행위의 진상을 가리우고 《정권》위기를 수습하려고 발버둥질을 하지만 그것은 부질없는짓이다.

불법적인 선거개입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남조선민심의 요구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별의별 술책을 다 꾸며도 진실은 결코 가리울수 없으며 집권위기도 모면할수 없다.

본사기자 심 철 영

로씨야 《색갈혁명》의 후과에 대해 언급, 제재에 대응할 립장 강조

로씨야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가 최근 전로청년연단 《쎌리게르-2014》에서 연설하면서 《색갈혁명》이 국제정치에 심각한 후과를 미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색갈혁명》이 마치도 내부로부터 일어나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지로는 외부세력의 적극적인 부추김에 의해 발생하고있다고 하면서 외부로부터의 부추김이 없다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루지야는 물론 오늘 우크라이나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그는 일부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사태는 국제정치에 매우 심각하고도 불안정한 영향을 주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로씨야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가 8월 27일 제재에 단호히 대응해나갈 자기 나라 정부의 립장을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로씨야에 대한 비난은 계속되여왔다고 하면서 일부 나라들은 평등한 국제관계발전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있다고 까밝혔다.

로씨야는 대립을 바라지 않지만 만일 일방적인 제재가 계속된다면 그에 대응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반범죄투쟁에서 협조를 호소

케니아대통령 우후루 케니아타가 8월 27일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테로를 비롯한 범죄와의 투쟁에서 협조를 강화해나갈것을 지역나라들에 호소하였다.

그는 지금 국제적인 테로가 사람들의 사회생활전반에 위협을 조성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어느 한 나라나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지역나라들이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 때에만 테로와 조직적인 범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수 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적들의 침입에 대처할 립장 천명

이란군 륙군사령관이 최근 마잔다란주에서 연설하면서 적들의 침입에 단호히 대처할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최신식무기로 무장하고 높은 능력을 가진 이란무장력은 언제나 만단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있으며 나라의 안전과 령토완정을 위협하는 적들의 그 어떤 공격도 단매에 짓부셔버릴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란륙군의 한 고위지휘관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나라의 국경지역에서 있을수 있는 적들의 침략위협에 단호히 대처해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만단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있는 이란륙군은 적들의 위협에 반타격을 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진퇴량난에 빠진 반이란책동

이란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이 계속되고있다.

얼마전 미국은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제재대상에는 이란의 항공, 원유가공부문과 6개의 금융기업 등이 포함되였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이란의 핵무기와 미싸일개발에 관여한 개별적인물들과 기업들의 자산을 동결시키고 다른 나라들과의 거래를 금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미국은 반미자주적인 이란을 어떻게 하나 고립압살하기 위해 갖은 발악과 책동을 다하여왔다.

그러나 이란은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꿋꿋이 나갔다. 이에 위구심을 느낀 미국은 이 나라의 평화적핵활동을 걸고들면서 그것을 국제화하였다.

현재 이란의 핵문제를 놓고 이 나라와 미국사이에 치렬한 외교전이 벌어지고있다.

이것은 이란에 있어서는 자기의 평화적핵활동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호전이고 미국에 있어서는 국제법적으로 부여된 이란의 자주적권리를 빼앗기 위한 음흉한 강탈전이다.

이란과 미국을 위시로 한 6개 주요나라들사이의 핵협상이 해를 두고 진행되고있는것이다.

지난해 11월말 이란과 미국은 핵협상에서 잠정합의를 이룩하였다. 미국은 이란이 자기의 핵활동을 제한하는 대가로 이 나라에 대한 경제제재의 일부를 해제한다고 요란스레 떠들어댔다.

미국은 그것이 저들의 《승리》인것처럼 광고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였다.

6개월간의 협상을 진행하여 지난 7월 20일까지 최종협상을 진행하고 합의문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량측의 의견상이로 하여 협상은 끝을 맺지 못하였다.

결과 쌍방은 올해 11월 24일까지 협상기한을 연장하여 최종합의를 이룩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이란이 조금이라도 합의를 리탈할 경우 보다 가혹한 제재를 실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저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군사적압력과 경제제재를 실시하는것이 미국의 상투적수법이다.

이란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물리 만무하다.

이란은 자국의 핵개발권리가 보장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우라니움농축은 포기할수 없다는 단호한 립장을 밝히였다.

미국은 앞에서는 평화적방법에 의한 이란핵문제해결을 떠들면서도 뒤에 돌아앉아서는 이란에 대한 제재책동에 매달리고있다.

어떻게 하나 이란이 우라니움농축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것이다.

명백한것은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벌려놓았지만 그 막뒤에서 이 나라의 반미자주정신을 말살하고 정권을 전복하려는 목적을 여전히 추구하고있다는것이다.

미국의 이번 제재조치가 그것을 잘 말하여준다.

미국의 중동지배전략실현에서 결정적인 장애로 되는 나라가 바로 이란이다.

오늘에 와서 이란의 국방공업은 단거리 및 중거리미싸일, 무인기, 전투함선 등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낼 정도로 강화되였다.

최근 이란은 자국의 핵시설에로 접근하던 이스라엘무인기를 격추하였다.

이란의 군사력이 강화되였다는것은 중동에 미치는 이 나라의 영향력이 그만큼 증대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있으며 그럴수록 이란을 압살하기 위해 보다 발악적공세로 나오고있는것이다.

미국은 중동지배전략을 실현하는데서 이스라엘을 돌격대로 내세우고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력이 강화되는데 대해 몹시 불안해하면서 이란을 무력으로 타격할 꿍꿍이를 하고있다. 저들에게 《충실한》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도 이란을 압살하자는것이 미국의 속심이다.

이란은 중동지역에서 원유가 풍부한 나라일뿐아니라 군사적요충지대로 되고있다.

이란을 틀어쥐지 않고서는 중동지역에서 자기의 패권을 행사할수 없다는것이 미국의 타산이다.

그러나 이란은 자국을 기본목표로 강행되는 미국의 중동지배전략에 대응하여 반미자주정책을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다.

미국은 평화적인 핵에네르기개발과 관련한 이란의 정책에서 그 어떤 의심을 받을만 한 건덕지가 없는것으로 하여 전전긍긍해하고있다.

얼마전 미국무장관 케리는 이란과 힘든 협상을 진행한다고 토로하였다.

지금 미국은 이란과의 대결전에서 자기 힘을 다 소모하고있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다.

얼마전에도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는 일부 사람들이 우리가 미국과 협상탁에 마주앉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것으로 믿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지 않고있으며 제재도 완화시키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제반 사실들은 미국이 아무리 오그랑수를 써도 반미자주적인 이란의 립장을 꺾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라 명 성

여러 나라에서 자연피해

산불피해

로씨야의 씨비리지역에서 최근 산불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이미 불타버린 산림면적은 1만 8 400ha에 달하고있으며 부랴찌야공화국과 띠바공화국에서는 8월 28일 하루동안에만도 65개 장소에서 산불이 발생하였다 한다. 현지에서 진화작업이 진행되고있다.

또한 그리스의 남부지역에서 최근 산불이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 산불로 약 200ha의 산림이 불타버리고 많은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나라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3 84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큰물, 산사태피해

네팔에서 폭우와 큰물,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있다. 이 나라 내무성은 최근 2개월째 계속된 폭우에 의해 발생한 큰물과 산사태로 8월말현재 256명이 목숨을 잃고 250여명이 행방불명되였다고 밝혔다. 또한 3만여채의 살림집이 파손되고 1만 5 200여세대의 가정이 한지에 나앉았다. 현지에서 긴급구제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니제르에서도 최근 큰물피해를 입었다.

폭우로 인한 큰물로 6개 지역에서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3만 6 400여명의 주민들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정부에서 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있다.

지진피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북부지역에서 8월 24일 리히터척도로 6의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으로 약 90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수많은 건물들이 파손되였다. 또한 100여개 장소에서 가스루출사고와 화재가 련속 발생하고 6만 4 000여명의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에서 산사태피해

ㄱ-41140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